『주식회사 대한민국 희망보고서』(이원재저, 2005) 요약

정책기획위원회 2005.3.

1.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

1) 월스트리트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 미국의 월스트리트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중상규모의 경제로 파악

○ 세계 109위의 국토면적과 세계 25위인 4,800만 명의 인구규모로 아시아 3위, 세계 11위의 경제규모 달성(2003년, 명목GDP 기준)

○ 지난 30년간 연평균 실질GDP 성장률(1971-2002)은 7.2%로 외환보유고(1665억 달러, 2004년 5월)와 함께 세계 4위 수준

□ 한국의 소위 여론주도층은 정부의 "좌파정책"을 비난하며 '경제위기론'을 퍼뜨리고 있으나, 월街를 비롯한 해외의 아시아경제 전문가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

○ 월가는 대체로 '위기론'에 뚜렷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평가

-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좌파적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美 보수당조차 최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언어도단
- 한국의 건전한 국가재정은 무분별한 통화 증발을 특징으로 하는 남미식 좌파 분배정책과는 확연한 거리가 있음
- 현재의 경기침체는 과거의 내수 부양으로 인한 **내수과열**

상태가 조정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은 월가의 상식

○ 재벌·은행중심 성장모형이 투자자중심 모형으로 바뀌면서 비정규직 증가나 자영업 몰락,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한국만 겪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어느 전환기 국가보다 빠르게 극복 중

- 한국경제의 몰락을 예상하는 외국인투자자는 없음

○ 특히 IMF 이후 고통스러운 개혁을 통해 개방성, 투명성에서 일본과는 비교되지 않는 시장구조의 변화를 이끌어 낸 한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투자처 중 하나로 꼽힘

○ 다만, 경제구조 전환과정에서 자신감이 결여된 기업·소비자가 투자·소비를 유보함으로써 경제기반을 위협

⇒ 한국경제는 "**우울증에 걸린 올림픽 꿈나무**"
⇒ 희망의 객관적 인식에 근거한 **자신감 회복**이 핵심 과제

2) 세계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아시아는 중국, 인도의 초고속 성장을 배경으로 장차 세계경제 중심에 서는 것은 물론, 문화와 지식정보, 국가브랜드에 있어서도 그 위상이 급속히 제고 ⇒ "아시아 붐"

> 골드만삭스는 『브릭스와 함께 꿈을(Dreaming with BRICs)』이라는 보고서에서 2050년 국가별 경제 규모 순위(GDP 기준)는 중국·미국·인도·일본(·브라질·러시아) 순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2010년까지 영국과 독일을, 2015년까지 일본을, 그리고 2040년에는 마침내 미국까지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38-39쪽).

3) 한국 경제의 전략: 아시아의 따뜻한 미국

□ '아시아 붐'은 한국이 중국·인도로 진출하고자 하는 세계적 기업들의 허브 역할을 함과 동시에 초고속 성장 중인 그 거대한 경제권 안에서 스스로 지배적인 위치에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월가가 인정하는 유력 시나리오

□ 세계경제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경제의 가장 파괴력 있는 브랜드 전략은 '**아시아의 따뜻한 미국**'

○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을 기반으로 세계의 모든 기업이 물건을 팔고 싶어하는 세계 경제의 허브 역할을 통해 막강한 경제력 유지

○ 아시아에서 미국과 같은 **소비대국, 허브국가**의 잠재력을 갖춘 나라는 한국 ⇐ 월가가 꼽는 최선의 시나리오

□ 한국은 '아시아 유일 소비대국·허브국가'의 조건 구비

○ (1) **비교적 균등한 소득분배에 기반한 소득·소비 수준의 유사성** (2) **문화적 동질성** ⇒ 유행에 민감하고 '떼거리 근성'을 가진 소비자집단 ⇒ 적은 인구규모로도 특정한 상품(부문)에 대한 두텁고 역동적인 소비시장 유지 / 생산자간 치열한 경쟁

한국의 소비자는 세계 그 누구보다도 새로운 것에 민감하다. 그리고 이른바 '떼거리 근성'이 있어서 한 번 유행을 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들인다. 이런 역동적인 시장은 세계적 상품을 여러 개 창출해 냈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생필품 신세를 벗고 패션과 엔터테인먼트로 한 단계 발돋움한 휴대전화는 가장 대표적 예다. 세계 최고 가입률을 자랑할 정도로 초고속인터넷에 열광하는 한국 소비자들은, 미국 라이코스를 인수한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일본에 진출해 선전중인 NHN(네이버), 대만·중국의 한국산 온라인게임 열풍을 만들어 냈다. 한국 소비시장은 첨단 글로벌 기업 인큐베이터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셈이다(48-49쪽).

※ IT분야 포함, 세계적 기업들이 한국을 중국·인도 진출을 위한 사전테스트 시장 또는 교두보로 적극 활용하는 추세

○ IMF 이후 구조개혁을 거친 경제의 투명성과 개방성

- 중국·인도처럼 1인당 소득이 낮은 나라와는 비교불가능할 정도로 시장경제에 친화적인 문화와 사회구조, 정부정책
- 일본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외국자본에 대해 덜 개방적
- 대만, 싱가폴은 협소한 시장과 정치불안에 따른 한계 지님

○ 아시아중에서는 서양식 시스템을 빠르게 받아들였으면서도 동양적 전통과 문화를 유지하여 문화 다양성을 확보

○ 사회안전망 확충, 제대로 된 소득분배체계, 다른 민족·인종에 관한 관용(=따뜻함)이 두텁고 역동적인 소비시장을 유지하고 허브국가로 가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

⇒ 현시점에서는 **"평등의 길 = 성장의 길"**

2. 대한민국을 에워싼 아홉 가지 오해와 희망의 근거

한국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비관론, 잘못된 고정관념** 등을 분석적 근거의 제시 및 발상 전환을 통해 공박하고 있음

□ 한국 경제는 역동성을 잃었는가?

○ 2005년 경제성장률이 5%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경제 예측기관들의 전망을 두고 "역동성 잃은 한국경제"라는 비관론 대두

○ 그러나 그러한 전망치를 국제 비교해보면 역동성 상실이라는 비관론은 커다란 오해 혹은 왜곡에 불과

- 1998-2003년 한국의 평균성장률은 경제 붕괴 상태였던 1998년의 (-)성장률을 포함해도 4.17%로서 아일랜드·룩셈부르크에 이어 OECD회원국 중 3위
- 2005년도 예상성장률 역시 유사한 경제 규모(GDP 기준)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

※ 영국의 경제주간지 *Economist*誌의 2005년 예상성장률 전망: 한국(4.9%), 네덜란드(2.0%), 호주(3.4%), 캐나다(2.9%), 스페인(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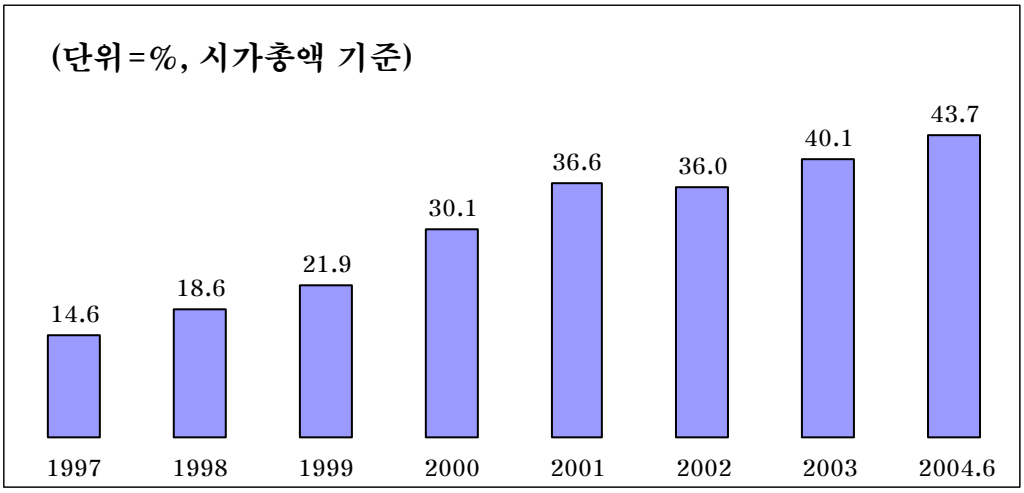
- 일본이 1970-80년대 세계시장에서 미국과 각축을 벌이던 시절에도 평균 성장률은 4-5%

○ 한국은 세계 4위의 외환보유고, 세계 10대 채권국으로서의 안정성과 성장률 5%, 수출증가율 30%의 역동성을 동시에 갖춘 **세계시장의 무서운 아이**

□ 좌파적 분배정책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떠나간다?

○ 한국경제에 대한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외자유출 우려는 오해에 불과

<외국인투자자의 증시지분율 추이>



○ 월가는 IMF 구조개혁 이후 한국경제의 투명성이나 지배구조의 건전성 등에 대해 일본보다 높게 평가

- 일본은 지지부진한 산업구조개혁과 금융구조조정으로 '잃어버린 10년' 동안 침체를 겪었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

○ 한국정부는 무리한 재정지출로 경제를 부양하는 '남미형 분배정책'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는 것이 월가의 평가

-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세계적인 수준(2002년 이후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1% 미만, 미국은 2003년 3.5% 적자)

○ 한국 정부가 새로이 도입할 복지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는 워크페어(workfare)는 자본주의적 방식에 기댄 복지·분배정책으로 좌파와는 분명한 차이(서구에서는 우파의 정책)

□ 수출이 점점 둔화되고 있다?

○ 중국 등 개도국의 급부상, 환율변동, 유가불안 등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국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이었던 수출 둔화에 대한 우려 심화

※ 수출액 증가율(한국은행): 31%(2004년) → 10%대(2005년 추정)

○ 정확히 말하면 '수출' 둔화가 아니라 수출'성장세'의 둔화인데다 10%대로만 성장하더라도 세계적인 성장세

○ 보다 중요한 한국의 수출구조를 보면, 주요 수출대상국의 성장세가 두드러져 장기 수출 전망은 더욱 희망적

-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국가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며,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여전한 성장세
- 한국의 수출비중: 중국(19.6%), 미국(16.8%), 일본(8.6%)
- BRICs에 대한 최근의 수출 증가는 폭발적 수준이며, 이들 국가의 한국에 대한 수입의존도 역시 10년 전의 2배 수준

<BRICs에 대한 수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수출증가율(2004년)	56.9%	40.2%	27.3%	42.7%

<주요 성장국의 한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

	중 국	인 도	브라질	베트남	미 국
수입의존도 (2003년)	10.45(2위)	3.18(9위)	2.22(11위)	10.96(3위)	2.94(7위)

⇒ **BRICs와 함께 꿈꾸는 나라 대한민국**

□ 원천기술 부재론?

○ “한국기업은 원천기술이 부족해 제품제조시 기술·핵심 부품 등을 함께 구매해야 하므로, 수출 증가에 따라 수입도 증가하여 남는 게 없다”는 것이 비관론의 주된 요지

○ 원천기술을 개발할 것인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마케팅에 주력할 것인가는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는 ‘전략적 선택’의 대상일 뿐이며,

현대 경영의 세계적 흐름은 브랜드가치 및 (최종소비자에 대한) 마케팅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중

※ 미국에서 최근 10년간 가장 크게 성장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원천기술이 아닌 최종소비자에 대한 브랜드파워와 마케팅능력이 경쟁력의 핵심원천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05년 1월14일자에 ‘삼성전자의 연간 순이익 100억달러 돌파’를 보도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성공을 이렇게 묘사했다.

"오늘날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의 홍수 속에서 지침을 찾고 있는데, 강력한 브랜드가 바로 안내자의 역할을 제공하고 있는 지침이다. ……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서구 시장에서 값싼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나 만드는 가전 업체로 취급받던 삼성전자가 지난 몇 년 사이에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탈바꿈했다. …… 삼성전자는 브랜드 구축 전략과 제품혁신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 과거 서구의 소비자들은 카메라 하면 코닥, 텔레비전 하면 RCA, 라디오 하면 부시 제품을 구매했는데, 그것은 이들 브랜드가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 이후 일본 제품들이 그 자리를 이었으며 현재는 한국 제품들이 그런 위상을 획득한 것이다.”(93-94쪽)

-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는 성공시 획득할 수 있는 엄청난 보상만큼이나 큰 위험부담을 요구

○ 한국기업이 하청생산·기술모방 단계에서 시작하여 세계시장에서 독자적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면서 풍부해지는 여력으로 원천기술 개발에 나서는 전략은 현대 경영의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는 합리적 전략

※ 한국은 2003년 비즈니스위크 선정 세계 50대 브랜드에 속한 상표를 갖는 8개국 중 하나가 됨

□ 내수침체론?

○ 내수침체는 2003-4년 한국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특히 자영업자에 큰 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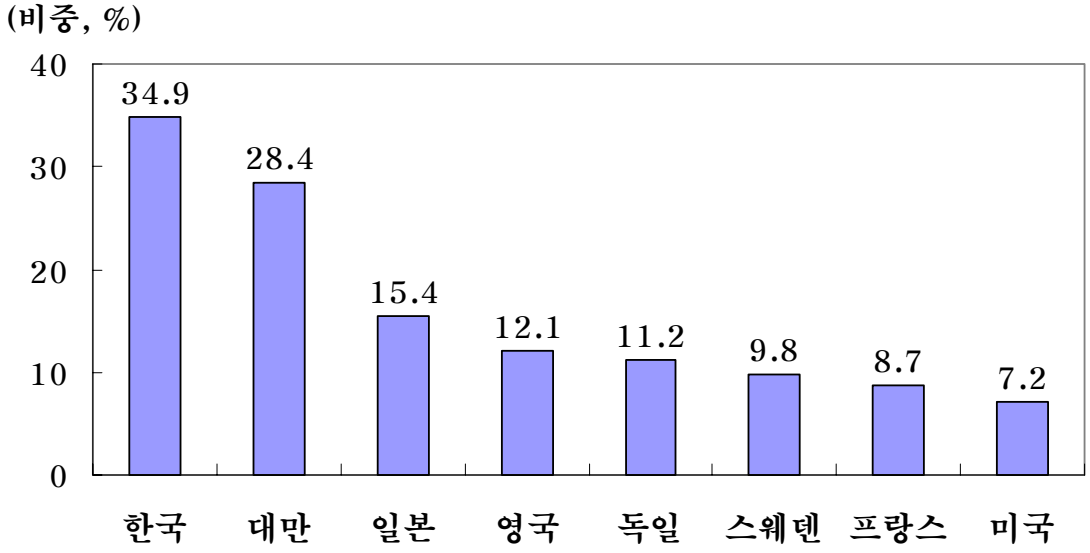
- 내수침체의 전반적인 이유는 소비자 및 기업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자신감 부족으로 인한 소비·투자심리의 부진
- 내수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내수 대기업들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점유하던 시장에까지 진입하여 성장을 거듭하면서 꾸준한 수익과 주가 상승세를 보임
- 외국계기업은 꾸준히 국내에 진출하면서 국내마케팅 강화

⇒ 내수 산업의 전반적 위기라기보다 자영업의 위기

○ 특히 자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은 자영업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

- 재취업이 쉽지 않은 배타적 노동시장, 독립심·창업가정신, 소득불투명성으로 인한 사실상의 조세 특혜 및 각종 창업 지원정책 등에 기인

<자영업 비중의 국제비교>



○ 현재 자영업이 처한 어려움은 (재벌기업, 벤처에 이은) 자영업 구조조정 및 내수산업의 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

⇒ 서비스업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

○ 자영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패한 자영업자가 성장하는 부문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유연하면서 따뜻한 노동시장과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갖추어야 함

□ 강대한 노동조합이 한국경제를 망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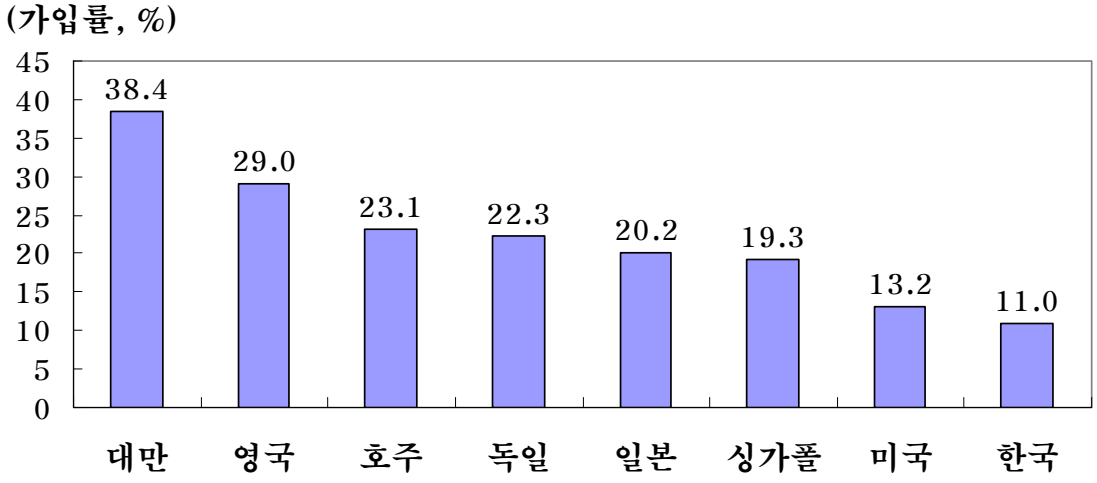
○ 강대한 노조의 이기심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

○ 그러나 자료에 근거해 살펴보면, 노조가 전반적으로는 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에 보다 가까운 평가

※ 노조 약화는, 노동시장 유연화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산업 구조 변동으로 조직화가 어려운 서비스업 노동자와 고소득 전문직 노동자가 늘어나는 데 따르는 현상

-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인데다, 그나마 감소추세에 있음

<OECD 회원국 노조가입률 비교>



-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노사협상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는 전국 769개 사업장의 2003년 최종 임금인상률은 6.4%에 불과(기업 전체 평균 9.2%)

※ 노동조합의 최초 임금인상 요구안은 평균 10.8%로서, 기업 전체 인상률 평균 9.2%보다 크게 높지 않은데다, 실제 인상률은 회사 쪽의 최초 제시안 4.9%에 보다 가깝게 결정

- 일부 사례만으로 한국 노동자 전체가 세계에 유례 없는 이기심으로 경제를 파탄에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분히 감정적이며 근거가 부족

○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고용 불안과 자신감 상실은 소비부진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서,

노조는 정부와 기업이 현명하게 대처하기만 한다면 소비자로서 노동자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되찾게 할 수 있는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음

3. 무엇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전진을 가로막는가?

⇒ **"비관론의 구조적 재생산, 자신감 부족"**이 핵심요소

□ (외부기제) 언론·지식인사회의 비관론 재생산구조

○ 국내 언론, 기업인, 지식인사회의 비관론 ⇒ 이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 해외 언론 및 외국인투자자의 부정적 시각 야기 ⇒ 이를 국내 언론과 지식인사회가 재인용함으로써 비관론을 확대재생산

"한국 35위" IMD국가경쟁력 평가의 숨은 진실

2004년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전세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 종합 경쟁력에서 60개 국가 및 지역 경제권 가운데 35위에 머무르는 수모를 겪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2위) 홍콩(6위) 대만(12위) 말레이시아(16위) 중국(24위) 인도(34위) 보다도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는 전세계 꼴찌, 대학교육 경쟁력은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국내 언론은 신이라도 난 듯 이 평가 결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날치 신문에는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비탄이 가득 찼다.

"국가경쟁력 이대로 둘 것인가"(동아일보) "세계 꼴찌의 노사, 교육 경쟁력" (한국경제신문) "한국 국가경쟁력 태국, 인도에도 뒤져"(경향신문)

그러나 IMD가 어떻게 국가경쟁력을 평가했는지에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 IMD는 국가 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 323개 항목을 평가하는데, 이 가운데 112개 항목은 해당 국가 기업인과 자영업자 400명 대상 설문 조사다. GDP 등 객관적 지표 차이에 견줘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설문 조사 결과의 특성상, 해당 국가 기업인들의 의견이 경쟁력 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런 식의 조사가 통계학적으로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물건 A와 B 사이의 소비자 선호도를 비교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면서, A에 대한 설문은 한국에서 하고 B에 대한 설문은 미국에서 한다면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할 수 있겠는가? IMD 조사에서도 서로 다른 조사 대상 집단 사이의 심리적 상태 차이가 통제되지 않았으므로 객관성에 있어서는 휴짓조각이나 다름없다.

아니, 중요한 가치를 한 가지 갖고 있기는 하다. 조사 대상 집단들의 심리 상태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IMD조사 결과 한국 국가경쟁력이 세계 35위로 나왔다는 것은, 한국 기업인들이 한국 사회에 대해 갖고 있는 심리적 자신감이 세계 35위 이하라는 뜻이다. 지난해 GDP성장률 등 객관적 경제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점을 감안하면, 심리 지표로는 거의 꼴찌에 가까웠을 것이다.

결국 한국 기업인들의 비관론을 IMD에서 받아 쓴 결과를, 한국 언론이 되받아 확대 재생산한 꼴이다. 한국 언론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따라서 이런 보도를 접한 기업인들의 비관론은 더 골이 깊어진다. 기업에 영향력이 큰 연구소인 자유기업원은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노사문제, 정치권, 정부 교육부문이 갉아먹고 있다"면서 비관론을 설파했고, 언론은 다시 이 비관론을 확대 재생산했다(152-154쪽).

□ (근본 이유) 분배불평등 심화/양극화로 인한 자신감 상실

○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장과 분배 사이의 이념논쟁”은 월가의 경제학자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

- 성장과 분배는 “생산 → 분배 → 소비·투자 → 생산”의 순환과정에서 보듯 밀접하게 상호 관련되어 있고, 소위 ‘분배론자’의 주장은 그 과정 중 막혀 있는 고리를 풀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월가의 대체적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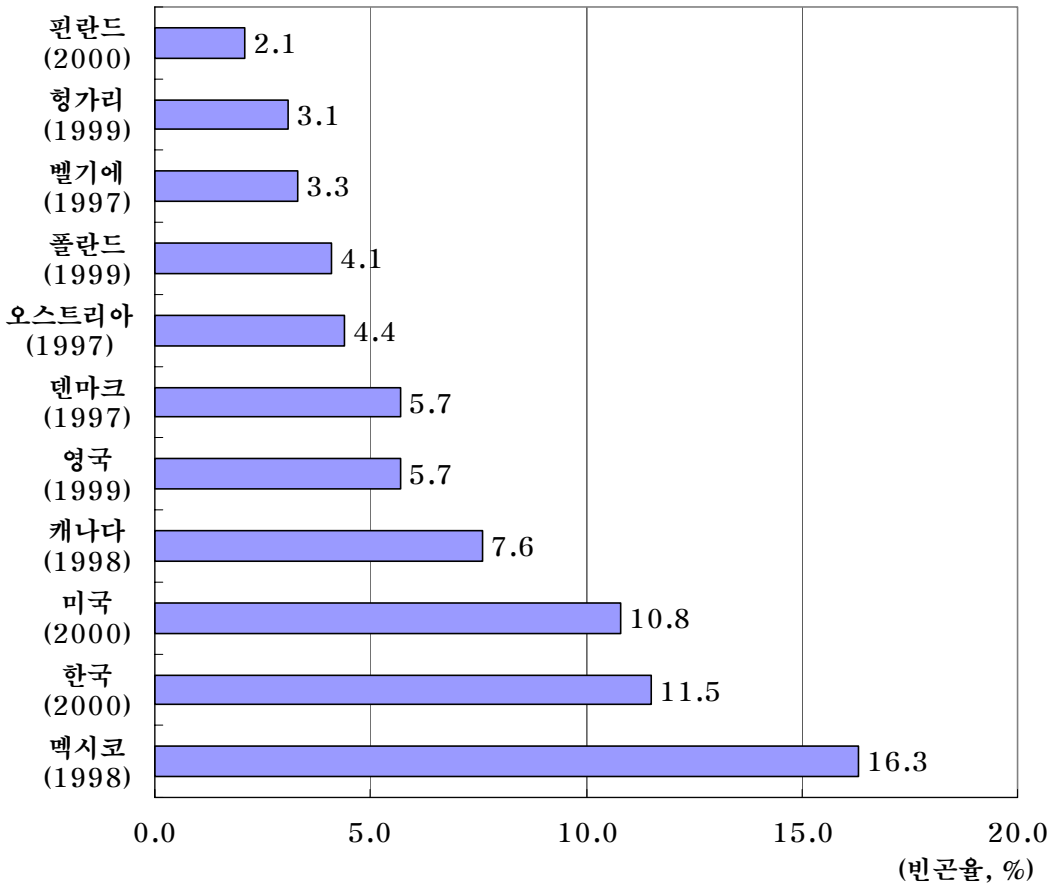
○ 2003년 이후 한국경제가 이룬 지표상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분배의 순환고리가 상처를 입으면서 다수 국민이 불황 속에 신음

- 고용 없는 성장, 비정규직 증가, 해외 하청 생산 증가 등에 따라 기업 수익과 성장의 과실이 소비자에 환류되는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 ⇒ 소비자의 자신감 위축

○ 저소득층 몰락에 따른 분배불평등·양극화 심화 ⇒ **절망의 전염** ⇒ 균등한 소득분포에 바탕을 둔 두터운 중산층 및 ‘떼거리 소비’의 기반 붕괴 ⇒ 소비대국·허브국가의 전망에 지장 초래

※ 소득격차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세계 경제의 허브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쪼개진 시장조차 세계의 기업을 충분히 끌어모을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경제규모 덕택

<상대빈곤율의 국가간 비교>



○ 일용직·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일자리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소비심리 불안정 야기

⇐ 노동시장의 "**반쪽자리 유연성**" (유연한 해고/경직적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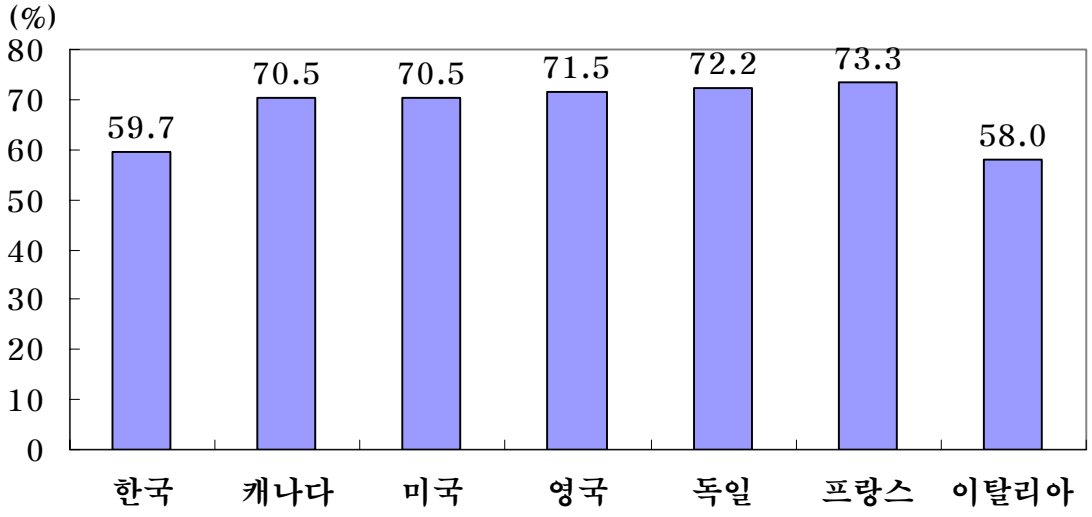
평생직장 대신 평생직업을, 직업 이전의 자유를, 창조적인 노동의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 유연성은 사람들의 자신감을 오히려 북돋울 수 있다. 그러나 나이나 휴식 기간에 관계없이 경쟁력만 있다면 언제나 재고용이 가능한 따뜻한 노동시장이 전제돼야 한다. 최근 한국시장에서의 비정규직 증가는, 고용은 경직돼 있고 해고만 유연한 상황

에서 저임금 노동자층이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다. 반쪽짜리 유연성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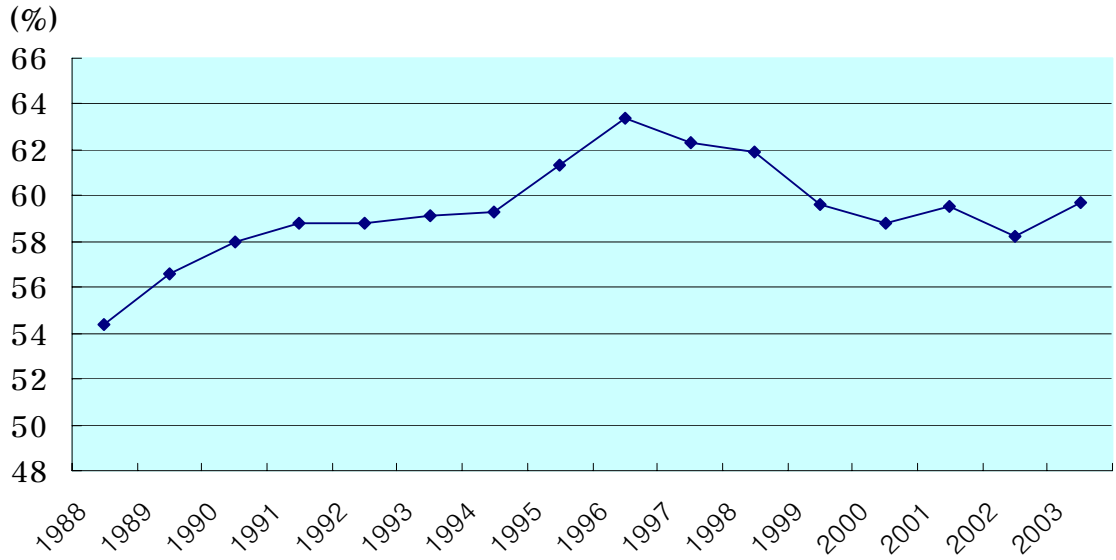
비밀은 노동생산성의 함수에 있다. 노동생산성은 생산된 전체 가치를 전체 임금노동자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그러니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다. 기술·조직 혁신을 통해 같은 노동으로 더 많은 생산을 달성하는 방법이 정석이다. 그러나 최근 자신감을 잃은 많은 한국 기업들이 기술혁신 대신 단순히 노동자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려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173-174쪽).

※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 중 노동에 돌아가는 몫)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 연도별로 보더라도 외환위기와 함께 급속히 하락한 후 더딘 회복 추세

<노동소득분배율 국가간 비교>



<노동소득분배율 연도별 비교>



○ 사회안전망 확충, 분배불평등 완화, 유연하면서도 따뜻한 노동시장 구축 등을 통해 소비심리 안정 및 자신감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중요

□ (역사적 배경) 잘못된 과거의 합리화

○ "독립과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역사"는 美언론이 한국을 바라보고 서술하는 주된 시각일 만큼, 한국의 현대사는 매력적이고 감동적인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

MIT의 세계적 석학 노엄 촘스키 교수가 MBA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참석한 일이 있다. 당시 이라크 전쟁이 한창이었고, 촘스키 교수는 현대 세계 체제가 제3세계 서민들을 수탈하는 야만의 길로 향해 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 자리에서 한 미국 학생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발전의 모델을 이룬 나라가 현실에서는 어디라고 보십니까?"라고 질문하자 촘스키 교수가 대답했다.

"한국(South Korea)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딛고 일어나서, 독자적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동시에 독재 정권에 항거해 평화적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해 냈습니다. 세계 최고 휴대전화와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할 정도로 첨단 기술이 온 국민들에게 골고루 퍼졌고, 바로 2년 전에는 네티즌의 힘으로 개혁적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정도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했습니다."

…… 나는 깨달았다. 한국 역사는 정말 한편의 아름다운 소설이다. 한국인들은 충분히 자랑스러워 할 자격이 있다. 이만큼 드라마틱한 현대사를 쓰고도 여전히 역동성을 잃지 않고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다.

미국의 언론을 유심히 살펴보다 보니, 한국의 역사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뒤 전쟁까지 겪었으나 독자적 경제발전을 이루며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까지 이룬 나라'라는 수식어가 단골처럼 등장했다. 독립과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역사는 이미 한국의 트레이드마크가 되고 있었다(177-179쪽).

○ 잘못된 과거를 합리화하기 위해 여론주도층이 반복했던 변명과 왜곡 대신 국민이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장잠재력을 현실화하는 길

4.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네 가지 트렌드

□ 저출산·고령화 경향의 극복을 위한 정부 및 사회의 책임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 ⇒ 가족주의 확산의 토대

○ 가족주의는 국가주의/개인주의 사이의 가치관의 혼란을 정리하면서 인적자원 확충 통해 경제역동성 회복에 기여

□ 한국민에 특징적인 박애주의 물결의 확산이 대한민국을 "이웃에 따뜻한 나라"의 이미지로 바꾸게 될 것

○ 재외 동포와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의 국가명성 및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중국적 허용 문제를 포함한 제도개선에 전향적 자세 필요

□ 세계화 및 양극화로 인한 공동체 동질성의 약화는 자칫 소비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정부(=보호자)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시장은 계약·법중심주의로의 전환을 통해 그러한 '차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에 있음

□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일하는 부자'들이 '부동산 부자'를 대신하여 국가경제의 핵심 계층이 될 것

○ 그들은 국가재정과 사회복지 유지를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당당하고 거침없는 소비로 내수경기 유지와 확대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